



**University of  
Zurich**<sup>UZH</sup>

**Zurich Open Repository and  
Archive**

University of Zurich  
University Library  
Strickhofstrasse 39  
CH-8057 Zurich  
[www.zora.uzh.ch](http://www.zora.uzh.ch)

---

Year: 2014

---

## **Faith and human rights: Christianity and the global struggle for human dignity**

Amesbury, Richard ; Newlands, George M

Posted at the Zurich Open Repository and Archive, University of Zurich  
ZORA URL: <https://doi.org/10.5167/uzh-106088>  
Monograph

Originally published at:

Amesbury, Richard; Newlands, George M (2014). Faith and human rights: Christianity and the global struggle for human dignity. Seoul: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 ***Faith and Human Rights***

**Translated into Korean by Hochul Kwak and published with a new foreword by Amesbury.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Seoul, 2014.**

### **Foreword to Korean Edition**

A few years ago, while on a trip to Korea, I watched as workers marched down a busy street in Seoul, stopping periodically to bow and to pick up cigarette butts from in front of the columns of riot police who – notwithstanding the nonviolent nature of the demonstration – lined their way. Some of the workers were Christians, and some were Buddhists, but they were united in their demand for safer working conditions on the construction sites where they labored.

The world today is increasingly polarized between those with wealth and those without it – between those who control the means of production and those who work for them, often under conditions of exploitation. One way of thinking about how to respond to such evident disparities of wealth and opportunity -- a way familiar to many Christians -- is in terms of the concept of charity. By “charity” I mean a gracious willingness to give freely of one’s own resources in order to help others.

Charity is admirable because it involves going beyond what is morally required in particular instances. It presupposes a kind of moral freedom on the part of the giver. Charity cannot be demanded of anyone: the giver is free to dispose of her resources as she sees fit. Charity is given freely, or it is not given at all. Moral agency belongs here to the *giver*, not the *recipient*, of charity.

Consequently, the proper response on the part of recipients of charity is *gratitude*, because although they may *need* what is given, they cannot be said to *deserve* it. It is theirs by grace, not by right. They are the beneficiaries of the giver’s virtue.

Charity is not, however, what the construction workers in Seoul wanted. They wanted *justice*. This book seeks to elucidate one possible way of thinking about justice -- namely, that of human rights. Rights-talk provides us with a different moral understanding of those in need. Rather than picturing them as passive beneficiaries of one's charity, rights-talk gives them moral agency. It implies that they have a rightful claim to what they require. As the philosopher Onora O'Neill has put it, "Those who complain that their rights have not been respected do not approach the established order as humble *petitioners*, but as wronged *claimants*."<sup>1</sup>

To say, for example, that people have a *right* to safe working conditions, or to clean drinking water, or to an education, or to speak freely, implies that they are *owed* these things as a matter of basic justice. Whereas talk of charity suggests that what is given belongs by right to the giver, talk of rights maintains that it belongs by right to the recipient. The former view sees giving as a praiseworthy act, whereas the latter suggests that the failure to make good on what is owed would be blameworthy. Respecting other people's rights is more like paying them what you owe them, than it is like being generous. To violate a right is not simply to violate an abstract principle, but to violate a person -- to fail to give him or her what is due.

But how can people be said to have basic individual rights? By virtue of what are they deserving of respect? In this book, George M. Newlands and I develop a theological account of human rights – one that seeks to make available a distinctively Christian understanding of universal human dignity while leaving room for alternative conceptions that draw upon other traditions of religious and moral reflection.

Professor Newlands and I are extremely grateful to Dr. Hochul Kwak for translating the present work into Korean. Dr. Kwak's own work on the rights of the

---

<sup>1</sup> Onora O'Neill, *Faces of Hunger: An Essay on Poverty, Justice and Development* (London: Allen and Unwin, 1986), 105.

economically vulnerable has challenged and stimulated my thinking about justice, and it is an honor to have been able to work with him to make the present volume more widely accessible.

Richard Amesbury  
Zurich  
27 June 2014

## 번역에 부치는 저자 서문

한국에 여행 중이던 몇 년 전에, 나는 서울의 복잡한 거리에서 시위행진을 하는 노동자들을 보았다. 그들은 가끔씩 멈춰 서서 비폭력적이었지만 그들을 막고 서 있던 경찰들 앞에서 허리를 굽히고 담배꽂초를 주웠다. 그들 중 몇몇은 그리스도인들이었고, 몇몇은 불교도들이었지만, 노동자들이 일하는 건설 현장에서 좀 더 안전한 노동환경을 요구하는 일에 함께 연합했다.

오늘의 세계는 부를 가진 사람들과 가지지 못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생산 수단을 소유한 사람들과 그들을 위해서 종종 착취를 당하며 일하는 사람들 사이의 양극화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 부와 기회의 분명한 불평등에 반응하는 한 방법은,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익숙한 방법인데, 자선의 방법이다. 내게 자선은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사용하는 자발성을 의미한다.

자선은 존경할만하다. 그 이유는 도덕적으로 요청되는 것 이상을 자선을 통해 하기 때문이다. 자선은 기부자의 측면에서 도덕적

자유를 전제한다. 자선은 다른 사람에게서 강요될 수 없다. 기부자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한도에서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자선은 자유롭게 기부되든지 아니면 아예 기부되지 않는다. 도덕 행위자는 자선 기부자이지 자선 수혜자가 아니다.

결과적으로, 자선의 수혜자가 보여야 할 적절한 반응은 감사이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해도 자신들이 그것을 받아야만 한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이 받은 것은 은혜에 의한 것이지 권리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기부자의 미덕의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자선은 시위에 참여한 서울의 건설 노동자가 원했던 것이 아니다. 그들은 정의를 요청했다. 이 책은 정의에 관해 사고하는 한 방법을 설명한다. 즉 인권의 방법이다. 자선의 수동적인 수혜자로서 그들을 규정하기보다는, 권리-논의를 통해서 그들에게 도덕적 행위자의 자격을 부여한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얻어야 할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 철학자 오노라 오닐(Onora O'Neill)은 이렇게 말했다. “그들의 권리가 존중되지 않았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주어진 질서를 겸손한 간청자가 아닌 부당한 취급을 받은 요구자로 접근하는 것이다.”<sup>1)</sup>

예를 들어, 사람들이 안전한 근로 조건이나 안전한 식수, 교육, 언론의 자유를 가질 권리를 가졌다고 말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정의로 그들에게 주어져야 할 것임을 의미한다. 자선의 논의가 기부된 것들이 기부자의 권리에 속한다고 보는 반면, 권리의 논의는 주어진 것이 수혜자의 권리에 속한다고 본다. 전자는 기부를 칭송할만한 행위로 보지만, 후자는 주어져야 할 것을 제공하지 않는 실패는 비난받을 만한 것이라고 본다.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은 당신이 그들에게 빚진 것을 갚는 것을 의미하지 관대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추상적인 원칙을 위반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인간을 침해하는 것이며, 그(녀)가 받아야 할 것을 주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기본적인 인권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는가? 무엇에 기초해서 사람들은 존중받아야 하는가? 이 책에서, 조지 뉴랜즈와 나는 인권의 신학적 설명을 제시한다. 이 설명은 보편적인 인간 존엄성에 관한 그리스도교적인 이해이지만, 다

---

1) Onora O'Neill, *Faces of Hunger: An Essay on Poverty, Justice and Development*(London: Allen and Unwin, 1986), 105.

른 종교와 도덕적 성찰의 전통에서는 다른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 놓는다.

뉴랜즈 교수와 나는 이 책을 번역한 곽호철 박사에게 깊은 감  
사를 전한다. 경제적 약자의 권리에 관한 곽호철 박사의 저술은  
정의에 관한 나의 생각에 도전과 자극이 되었다. 그와 함께 일하  
며 번역작업을 통해서 이 책을 더 널리 알리게 된 것이 내겐 영광  
이다.

리차드 에임즈베리

취리히 연구실에서

2014년 6월 27일